

“지자체·교육청 협력 초등돌봄 확대 시급”

100% 돌봄 지원 위한 ‘제주형초등돌봄’ 난상토론 지역별 수요 조사 바탕 학교·마을 연계 방안 필요 돌봄 기관 현원 등 실시간 탑재 플랫폼 구축 제안

제주시 동지역 학교 등 올해 초등돌봄 탈락 인원이 모두 합쳐 800명을 웃돈 가운데 돌봄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 제주도의회(고의숙 교육의원)와 공동으로 마련한 ‘제주형초등돌봄 협력적 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한 난상토론을 통해서다.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지자체, 교육청의 돌봄 업무 담당자와 지역 관계 기관 종사자 등

40명가량이 함께했다. 초등돌봄 수요가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와 교육청이 기간 벽을 허물고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 돌봄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등돌봄을 포함한 도내 방과 후 돌봄은 크게 5개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초등돌봄교실 237실과 마을키움터 13개소를 운영 중이다.

도청에서는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지역아동센터 65개소, 방과후아카데미 8개소를 두고 있다.

이 같은 도내 공적 돌봄 중에서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초등학교 1~2학년이 중심이 된 초등돌봄교실이다. 경제활동 인구 증가가 양육 환경의 변화로 돌봄 수요가 늘고 있지만 학교 내 공간의 한계로 올해 제주지역 초등돌봄교실 수용률은 86.9%에 그쳤다.

난상토론에 참석한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와 마을을 연결한 제주형 모델 탐색을 제안했다. 손태주 위원은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연계, 학교안 여유 공간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한 울주군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제주는 마을마다 초등학교가 있어서 지역별 수요를 우선 파악한 뒤 공동체성으로 운영되는 자원을 활용해 민관협력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돌봄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제주도 차원의 통합 플랫폼 구축도 제안됐다. 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돌봄 기관에 대한 정보와 함께 대기자나 미달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 “학교와 마을 여유 공간을 활용한 돌봄 공간 조성 등 도청과 협력적 초등돌봄 체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7m 짜리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30일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 내 신화테라스에 높이 7m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돼 방문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강희만기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행정절차 재개

토지 보상률 58%... 제주시, 내년 1월까지 마무리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최근까지 경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별도의 발언 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기각 결정이 잇따랐던 감사원의 감사 결과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절차의 진행이 시

민들의 우려를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그동안 보류했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다만 이번 감사결과 외에 환경단체에서 추가로 제기한 의혹사항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를 의뢰한 만큼 이에 대해 제주시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각계각층에서 많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제주도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법원의 1차 판결이 나왔지만 문을 열어 놓고 의혹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오등봉공원의 토지보상률은 58%로 나타났다. 강 시장은 “50% 이상 토지가 확보된 경우 강제수용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수용 재가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현금 4800만원에 황금열쇠가...

도, 고액상습채납자 가택수색해 압류

제주특별자치도는 2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채납자 1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지난 11월 7일부터 28일까지 총 3회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채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채납자들이었다. 채납액은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세무공무원 6명을 투입해 수차례에 걸친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4800만원과 황금열쇠·고급시계·반지 등 귀중품 14점을 압류 조치했다.

특히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수색해 현금 4400만원을 압류했으며 증거 채증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바디캠 및 고프로)를 착용하고 수색과 동산압류를 진행했다.

압류한 현금으로 채납액을 즉시 충당했으며 황금열쇠 및 반지 등

귀금속 14점 등은 전문기관을 통해 진품 여부 감정과 매각가격을 결정 한 후 판매 의뢰할 예정이다.

수색을 실시했으나 압류 물품을 찾아내지 못한 채납자 1명에 대해서는 수색조사를 등록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했으며 채납자 4명은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불법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추적해 강제매각을 증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66대를 추적, 매각해 2억2900만원을 징수했다.

대포차는 법인 부도, 소유자 사망, 개인 간 채무 등에 의해 발생되며 세금 채납과 함께 음성적 거래 및 뺑소니 등 불법행위 도구로 사용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추적 후 매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고액 채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이외에도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가해 채납액을 강력하게 징수에 나갈 계획이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지역 에너지 다소비 건물 총 13곳”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건물 비중은 0.01%인데 에너지소비는 23% 차지”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30일 ‘2021년 제주도 에너지 다소비 건물 확정자료’를 공개하고 기존 12곳이었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 1곳 늘어나 13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제주행동은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 13곳으로 늘며 이들이 사용한 에너지도 6만7080석유환산톤(이하 toe)에서 7만285toe로 약 4.7%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제주행동에 따르면 새롭게 추가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들어선 한 호텔로 이곳에서 한 해 사용된 에너지는 3201toe이며, 이 호텔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 6402t으로 이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30년생 소나무 97만 그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행동은 “지난해 기준 도내 13만2442곳의 건물 중 에너지 다소비 건물 13곳이 차지하는 비중은 0.01%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제주 전체 건물사용량(31만1447toe)의 22.56%나 된다”며 “2021년 증가한 2만2246toe의 99.5%가 바로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서 발생했다”고 했다. 김도영기자



사람으로 지은 집
사람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합 축 격
CONGRATULATIONS

제59회 세무사시험



양혜미
(부: 양재원 모: 서명일)

제59회 세무사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셔어셔
(고경호, 김상익, 양흥기, 오광현, 이태영)

수 축 상
CONGRATULATIONS

국무총리표창



양혜숙
(주)아침미소 대표이사
(제주축산농협 낙농부녀회장)

국무총리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축산농협 낙농부녀회 회원 일동

수 축 상
CONGRATULATIONS

국무총리표창



김명수
(제주가족사랑상담소장)

국무총리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가족상담연구회
회장 양순중 외 회원 일동

수 축 상
CONGRATULATIONS

대통령상



양제윤
(지방부이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종합 1등으로 대통령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양씨 천호공파 연동계 문중회
회장 양석진 외 종친 일동